

광산업진흥회, 싱가포르 10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국내 광통신 10개사와 공동관 인도 국영 통신기업과 협약도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정철동)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아시아 최대 광통신 전시회인 'CommunicASIA 2022'에 참가해 총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광산업진흥회는 국내 광통신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CommunicASIA 2022'에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광통신 산업체 10개사와 참가해 공동관을 구성했다.

광산업진흥회는 광통신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칭하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광산업진흥회는 아시아 광통신 시장의 블루칩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기업 텔콤악세스(TELKOM AKSES)와 양국의 중소기업의 진출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관 참여기업인 선일텔레콤(대표 김규

식)은 영국 바이어를 공동관에 초청해 총 50만 달러의 추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참여기업 탈렌티스(대표 정지영)도 베트남 바이어사와 10만 달러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오트론(대표 정희영)은 필리핀 광통신 업체와 광케이블 공급 계약 15만 달러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한 텔콤악세스 소속 SUSILOWATI PANCE 이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 제품의 기술력은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광산업진흥회는 매년 해외 거점 광통신 광의료, 광소재·부품 등 분야별 해외 전시회 공동관을 5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9월에 예정된 유럽 광통신전시회 ECOC, 10월 독일 건축조명박람회 Light&Building, 11월 베트남에너지전시회 등을 통해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 확대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 광산업진흥회가 운영중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국내 광통신 산업체 10개사와 함께 싱가포르 'communicASIA 2022'에 참가해 공동관을 구성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365 비대면 종합상황실'을 통해 공동관 참여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상담 연계 및 수출계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각 전시회에서 발굴된 유망 해외 바이어를 8

월에 국내에서 개최될 2022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와 11월 제20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초청할 예정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코

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지원으로 국내 광융합 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aT, 농수산물 물가안정 방안 모색 간담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형목 유통이사는 최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한 뒤,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김형목 이사는 "농산물의 수매·비축을 통한 수급 조절과 농수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월 물가가 5%대



aT 김형목 유통이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및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aT 제공

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향이 매우 엄중하다"며 "농산물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화에

적극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풍수해공제로 태풍·홍수 대비하세요"

중기중앙회·행안부·KB손보

소상공인에 보험료 92%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

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 7월에 출시해 운영 중인 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

를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70~92%)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가입은 물론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이 풍수해공제에 가입시 추가로 보험료 2만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이 추가됐다. /김혜린 기자

광주 하남산단 등 6곳 대기 개선사업 추진

환경부, 2년간 355억 투입

광주하남산단지와 경기 양주·포천·동두천·광주시 등 6개 지역에 355억원이 투입돼 대기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 개선사업' 대상지 6곳을 7일 발표했다. 선정된 6곳은 광주 하남산단, 울산 울주군 삼동면, 경기 양주·포천·동두천·광주시, 전북 익산시 익산제2산업단지, 경북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경남 양산시

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 등이다.

이 지역들은 인쇄·도장·도금업체, 비료제조·화학업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등이 몰린 곳으로 앞으로 2년간 355억원이 투입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와 약취저감시설 보강 등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사업 대상지 사업장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 출시

버드와이저의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사진)'가 국내에 상륙한다.

버드와이저는 오리지널 프리미엄 라거 맥주 맛과 풍미를 그대로 구현한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버드와이저 제로는 버드와이저 맥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이다. 버드와이저와 동일한 원료와 발효 과정으로 제조해 오리지널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너도밤나무 조각들을 활용한 버드와이저의 독자적 숙성방법 '비치우드 에이징(Beechwood aging)' 역시 버드와이저 제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마지막 여과 단계에



서 알코올만 추출해 도수는 0.05% 미만이다. 프리미엄 라거 맥주맛을 즐기고 싶지만 알코올 음용이 부담스러운 여러 상황에서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버드와이저 제로는 500ml 캔 제품으로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및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